

“도내 기업 75% 코로나19로 피해”

제주상의 상공인 인식조사 결과 내수위축 심각
충전 최대현안 경기침체 지원확대·부양책 시급

코로나19 사태로 제주지역 기업의 피해가 업종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0곳 중 7~8곳은 '피해가 있다'고 응답하며 행정차원의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제주상공회의소가 2일 발표한 도내 11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제주지역 상공인 경제현안 인식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경

영상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은 74.8%에 이른다.

업종별 피해현황은 관광서비스(92.9%), 농·수·축산(90.0%), 유통·운수(90.0%), 제조(79.0%), 건설(50.0%) 업종 등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 초반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조사됐던 업종에서도 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등 전체 업종으로 확산

되고 있는 추세다.

주된 피해 요인으로는 '내수 위축(36.6%)'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국내·외 관광객 감소(27.4%) ▷대규모 행사 취소(16.0%) ▷막연한 심리적 불안감(11.4%) ▷투자 위축(5.1%) ▷기타(3.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제조업과 농수축산업, 건설업은 가장 큰 피해요인으로 '내수위축'이라고 응답했다. 관광서비스업과 유통·운수업은 '국내·외 관광객 감소'를 가장 큰 피해요인으로 꼽았다.

이와함께 제주지역 상공인들은 4·

15총선의 최대 경제현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31.1%)'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등 건설경기 침체(24.4%) ▷제주 제2공항 건설(22.8%) ▷기업 및 가계부채 증가(14.4%) ▷농가소득 감소(5.6%)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이에 따른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민생관련 최우선 정책공약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및 제도 개선(24.3%)'과 '공항·항만 등 사회기반 인프라 확충(18.1%)'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금탁기자

제주 코로나19 세번째 확진자

지난 23일 대구서 항공편으로 입도 40대 여성
5곳 방역·임시폐쇄... 접촉·격리자 증가할 듯

지난달 22일 코로나19 두번째 확진자 이후 잠잠했던 제주에서 세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관련기사 5면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대구에서 거주하다 지난달 23일 제주에 입도한 A씨(48·여성)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제주대병원 음압 병실에서 치료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생한 세번째 확진자의 1차 동선이 공개된 가운데 밀접 접촉자가 늘어나면서 현재 19명이 자가격리중이다. 향후 추가 동선이 확인되면 접촉·격리자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4시45분 대구발 제주행 티웨이 항공편으로 오후 5시30분쯤 제주도에 도착한 후 지인 B씨의 승용차를 타고 제주시 조천읍 함덕 소재 B씨의 자택으로 이동해 머물러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쯤 대구에 살고 있는 어머니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소식을 듣고 제주시에 한마음병원 선별진료소에 방문한 뒤 자진 검사를 요청한 결과 2일 오전 0시 5분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부터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결과 A씨의 코막힘, 목

잠김 등 증상이 발현된 날은 27일로 확인됐다.

도는 이날 A씨의 진술에 따라 증상 발현 하루 전인 26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1일까지의 1차 동선을 공개했다. A씨가 들른 것으로 파악된 5곳은 방역소독과 임시폐쇄 조치됐다.

A씨는 증상이 발현되기 전날인 26일 제주시 구좌읍 동북항 방파제에서 지인 B씨 등 3명과 함께 낚시를 즐겼고, 식당과 노래방 등을 들른 뒤 택시로 귀가했다.

증상이 발현된 27일부터 29일까지 지인 B씨의 차를 타고 함덕 해안도로 드라이브를 했고, 편의점과 카페, 식당 등을 돌아다녔다. 현재 자가격리자 중 대부분은 A씨가 29일 들른 함덕 소재 식당 직원과 이용객이다.

도는 A씨 확진 판정 후 지인 B씨에 대한 검체 검사도 즉각 의뢰해 이날 오전 4시20분쯤 음성판정을 전달 받았다.

도는 A씨의 1차 동선을 재난안전 문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의심 증세가 있으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IMF때는 박세리, 코로나19엔 임성재 제주출신 임성재가 2일(한국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팜 비치 가든스의 PGA 내셔널 챔피언스 코스에서 열린 2019-2020시즌 PGA 투어 혼다 클래식에서 최종합계 6언더파 274타로 정상에 올랐다. >>관련기사 9면 연합뉴스

① 선택2020 제주와 미래 한라일보·제민일보·JIBS 공동기획Ⅲ 아젠다20

인구절벽 초읽기... 각종 경제지표 '흔들'

<7>저출산·고령화와 교육

▶인구 자연감소 시대 예고=지난해 잠정 인구자연증가(출생-사망)가 역대 최소인 8000명에 그치면서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지역 상황도 비슷하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인구 자연증가(유출입 인구 제외) 규모가 매년 감

가는 561명에 그쳤다. 지난해 도내 연간 출생아수는 4509명으로 사상 첫 5000명 대 진입에 실패했던 2018년(4781명)에 비해 5.7% 감소한 반면 사망자수는 3948명으로 전년(3912명)에 비해 소폭 늘면서다. 이 격차는 매년 줄면서 조만간 역전현상 발생 여지가 충분하다.

이른바 '제주살이' 열풍이 시들해지면서 '탈제주화'도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1월 중 제주 전입자는 9990명, 전출자는 1만274명으로 순이동 인구는 284명이 줄었다. 지난해 12월(-24명)에 이어 두달 연속 감소한 것이다.

제주연구원의 '제주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용역보고서는 저출산에 의한 장래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 고령인구 증가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년부양비 증가 등의 문제를 제주지역 인구문제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따른 제주 인구정책 방향은 청년인구 유입 확대 및 유출 방지, 정착주민 정착 지원 등을 통한 생산연령인구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연론3사 공동취재단>

줄어든 아기 울음 속

이주 시들·탈제주 가속

실효적인 인구정책 필요

소하면서 머지않아 인구 자연감소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말부터 제주지역 순이동 인구가 감소, 인구유출이 본격화되면서 제주 사회 '인구절벽' 가속화 우려도 낳고 있다. 장래 생산연령인구 감소 전망에 제주경제지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월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과 국내인구 이동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제주지역 인구 자연증

유치원·초중고 개학 23일로 연기

대학에는 재택수업 권고

제주지역은 물론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이 이달 23일로 2주 더 연기된다. 코로나19 확산세에 교육부는 당초 3월 2일로 예정된 개학을 일주일 미뤘지만 학교 현장의 안전을 위해 추가 휴업이 불가피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국 모든 지역의 유·초·중·고 학교 개학일을 3월 9일에서 23일로 2주간 추가 연기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미성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학교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3월 초부터 최소 3주 동안 휴업이 불가피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추가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는 2단계 휴업에 들어간다. 교육부가 정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보면 휴업이 16~34일 지속되는 2단계에선 수업일수 감축이 허용된다. 이 경우 학교별로 전체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의 10% 범위에서 수업일을 줄일 수 있다.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1~2주간 개학을 연기한 전국 대학에는 재택수업을 하도록 했다.

김지은기자

하나새마을금고 이사장 취임

고승호 이사장

존경하는 회원님께
회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2020년 2월 22일 대의원총회에서 고승호 전무(전)가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2월 26일부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임원직원은 전임이사장의 업적을 이어 받아 하나새마을금고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하는 금고를 만들기 위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소통하겠습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께서는 올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강재필 고문
(전임이사장)

정동섭 부이사장

이양순 이사

부성길 이사

강성환 이사

고메십 이사

김용국 이사

이임홍 이사

고창진 이사

문학범 이사

유창호 이사

강선희 이사

고보환 이사

김만희 감사

김영진 감사

본 점 : 064-753-8080 (제주시 서사로 68) 중앙지점 : 064-745-3080 (제주시 연복로 33)
만덕지점 : 064-757-3080 (제주시 동문로 131) 정관장서사라점 : 064-751-2304 (제주시 서사로 91)

최대규모 신축회관 착공 (2021년 3월 준공예정, 연면적 약2천평)

새마을금고 최초 노유자시설(요양원) 개원예정 (입소인원 100명)

